



2년만에 준PO 진출

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연장 접전끝에 롯데를 2-1로 꺾고 준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가을 잔치' 나간다

롯데 꺾고 4위 확정... 8일부터 한화와 준플레이오프



상위 프로야구

KIA가 마지막 남은 '가을잔치' 티켓의 주인이 됐다. KIA는 2일 광주에서 열린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시즌 마지막 날 롯데전서 10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끝에 김원섭의 극적인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KIA는 이로써 5위 두산과 1.5게임차 4위를 유지하며 두산의 남은 1경기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KIA는 오는 8일 대전서 3위 한화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9일 광주서 2차전을, 11일 다시 대전서 3차전을 벌인다.

지난해 '꼴찌'였던 KIA의 올 시즌 4강 진출은 기적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국내 프로야구 25년 역사에서 '꼴찌'가 곧바로 4강에 진입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KIA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별다른 전력 보강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올 시즌 영입한 '용병' 서브넵과 스카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나 다름없었고, 믿었던 '만형' 이종범과 홍세완, 심재학 등도 시즌내내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마운드에선 1,2,3 선발 중 강철민은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고, 김진우도 어깨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비우기 일췌였다. 막판에는 잘해주던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마저 강행군에 지쳐 몸져 누웠다. 굳이 전력 보강을 따지자면 '10억짜리' 한기주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역시 한국시리즈를 9번이나 제패한 야구명가 호랑이의 전력은 힘들 때 더욱 빛을 발했다. 선배들이 풀줄이 무너지자, 젊은 후배들이 그 빈 자리를 메웠다. 타선에선 이용규와 김원섭, 이현근 등이 필혈 날았고, 마운드에선 한기주, 윤석민, 신용운, 이동현, 이상화 등 프로 입문 1~5년차의 젊은 피들이 팀을 이끌었다.

5회에 1점을 내준 KIA는 1-1로 맞선 10회말 2사 만루서 김원섭의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마감했다. 마운드에선 이상화(2.2이닝 무실점)-윤석민(4.1이닝 1실점)-한기주(3이닝 무실점-승리투수-시즌 10승)가 이어져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날 3타수 2안타의 불꽃타를 날린 장성호는 지난 98년 이후 9년 연속 3할타(0.306)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양준혁(1993년~2001년)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두산은 한화전서 0-6으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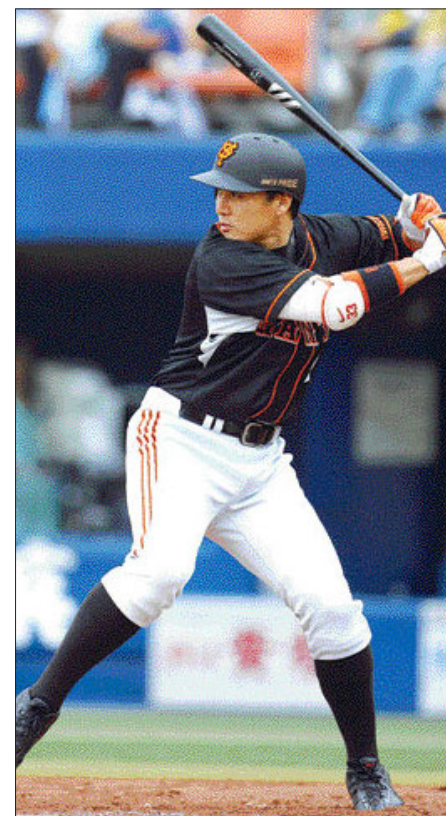
“이승엽 꼭 붙잡겠다”

요미우리 구단주 재디짐 “팀에 없어서는 안될 선수”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다키하나 다쿠오 구단주(67)가 이승엽(30·사진)을 주장 고루보 히로키와 함께 내년 시즌 요미우리 전력의 핵심선수로 지목하고 반드시 붙잡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키하나 구단주는 2일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와 가진 릴레이 인터뷰에서 돈 문제를 떠나 이승엽을 반드시 잔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날에는 이승엽을 '워렌 크로마티 이후 요미우리 최고 용병 타자'라고 극찬하는 등 연일 칭찬 세례를 퍼붓고 있다. 다키하나 구단주는 “이승엽은 총력을 기울여 붙잡아야 할 선수다. 리더십이 탁월한 고루보도 꼭 잔류시켜야 한다. 팀의 구심점이 될만한 선수로 고루보만한 이는 없다. (요미우리 적자인) 다카하시 요시노부는 그런 면이 약간 부족하다. 이승엽과 고루보는 내년 전력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라며 이들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언론은 시즌 중반 요미우리가 이승엽에게 3년간 10억 엔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책정 금액이 인상됐다는 소식은 없다. 시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피하고 있는 이승엽을 붙잡기 위해 미·일 구단 간 '머니(money) 전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다소 뻔한 얘기가만 회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 체제로 내실을 강화해 내년 시즌



샌프란시스코를 노리는 요미우리로서는 4번 타자로 시즌 내내 활약하며 강인한 체력과 날다른 해결사 능력을 선보인 이승엽이 꼭 필요하다.

다키하나 구단주는 “요미우리의 구단 수입에는 한계가 있기에 고액 연봉 선수 중 몸값을 못한 선수는 감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선수들이 워낙 부진했기에 이들의 연봉을 깎아 이승엽에게 한꺼번에 몰아줄 가능성도 생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포스트시즌 매 경기마다 MVP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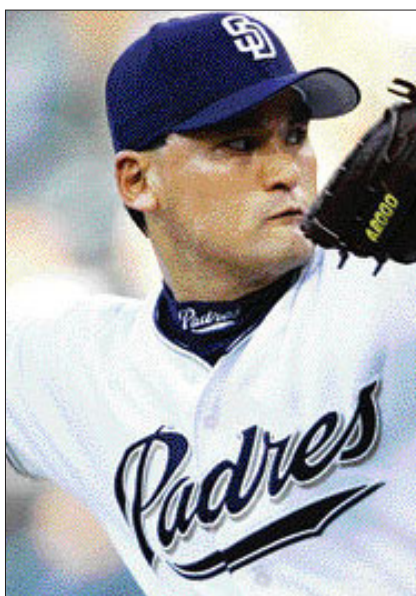
KBO “상금 100만원”

8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는 매 경기마다 MVP(최우수선수)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기자단 투표로 결정되는 한국시리즈 MVP 상금은 1천만원이며 KBO가 선정하는 플레이오프와 준플레이오프 MVP는 상금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다. 또 KBO는 포스트시즌 매 경기 MVP

를 선정해 상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시리즈가 지방팀끼리 붙을 경우 잠실구장에서 5,6,7차전이 치러진다. 이 경우 정규리그 1위인 삼성이 5,6,7차전 모두 1루 더그아웃을 사용한다. 선발투수는 정규시즌과 같이 경기 종료 후 다음날 선발투수를 바로 예고하되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투수는 전날 열리는 미디어데이에서 발표하며 준플레이오프 선발은 미디어데이 없이 7일 정도 발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빅리거 4인 올 시즌 성적표는?



■ 박찬호

후반기 1승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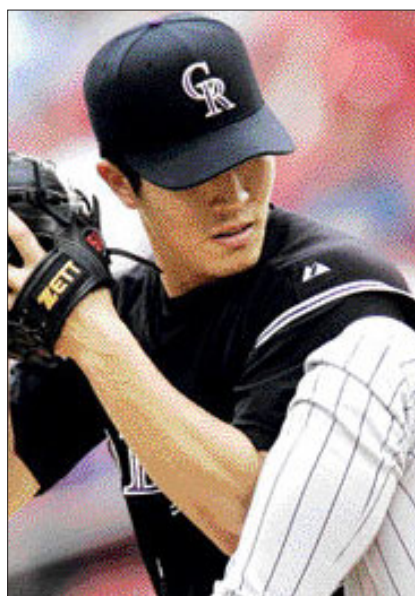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올 해 이적과 새로운 팀에서 인상적인 활약, 뜻하지 않은 수훈 등 우여곡절 끝에 정규시즌을 마쳤다. ▲수훈 악재 딛고 포스트시즌 무대 밟는 박찬호 올해 정규시즌 성적표는 7승7패, 방어율 4.81로 시즌 종료와 함께 지난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했던 FA 계약이 끝나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박찬호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전반기까지 6승(4패), 방어율 4.29로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중순 예기치 않았



■ 서재응

두차례 이적 불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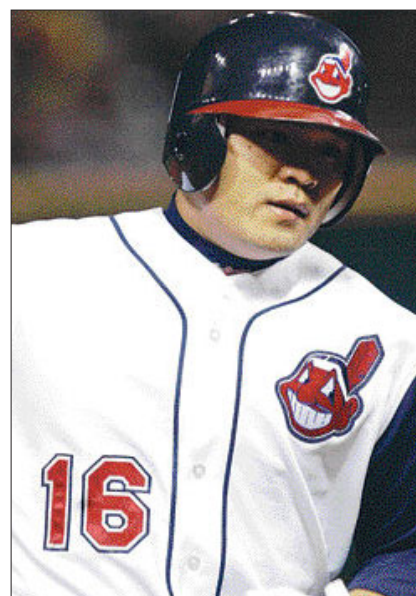
던 잘 활약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후반기 1승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행히 정규시즌을 완전히 접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달 26일 볼런진에 전격 합류했고 브루스 보치 감독도 포스트시즌 때 중간계투로 쓰겠다고 밝힌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시련과 불운에도 희망 던진 서재응 서재응은 올해 두 차례 팀을 옮기는 시련 속에서도 호투를 펼쳤지만, 팀 타선의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불운에 시달렸다. 시즌 성적은 3승12패에 방어율 5.33. 지난 해까지 8년 가까이 '뉴욕 메츠맨'



■ 김병현

선발 체질 눈도장

으로 활약하다 올 해 초 다저스로 전격 트레이드와 버리를 내리 못한 채 6월28일 탭 파베이로 다시 옮겨졌지만 승수와 인연이 적었다. ▲'투수들의 무덤'에서 부활한 김병현 시즌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지 못했지만 선발 체질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한 해였다. 김병현은 올해 8승12패, 방어율 5.57로 지난 2003년 9승을 뛰어 넘지 못했다. 9월4일 LA 다저스전에서 시즌 8승을 거둔 이후 4차례 등판에서 승수 없이 2패만 당한 게 아쉬운 대목이다.



■ 추신수

내년 붙박이 가능

▲플래툰시스템에도 호쾌한 타격 과시한 추신수 스즈키 이치로 등 탄탄한 외야진을 보유한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주전을 꿰차지 못하고 지난 7월27일 클리블랜드로 이적했지만 화끈한 타격이 솟아나며 내년 붙박이 나점 기대를 부풀렸다. 좌타자 추신수는 이적 직후 필요할 때마다 적시타를 때리며 영양가 만점을 활약을 펼쳤지만 에릭 웨지 감독이 상대 선발이 좌완이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플래툰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반쪽 우익수' 실용을 겪어야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추신수 2안타 2득점 '유종의 미'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멀티 히트를 때리며 시즌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했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오히리우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탭파베이 데블레이스와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장, 4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1-1로 맞선 1회말 2사 1루에서 중전안타를 치고 나가 후속타자 잰니 파랄타의 2루타에 홈까지 밟았다. 3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6회 선두타자로 나와 초구를 때려

우월 2루타를 만들었고 조 잉글렛의 2루타에 홈에 들어오며 2득점째를 기록했다. 7회 2사 2루에는 내야방블에 그쳤다.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6-3으로 이겨 탭파베이와 3연전을 싸움이었다. 추신수는 올 시즌 50경기에 출장해 161타수 46안타로 타율 0.280을 기록했다. 홈런 3개와 22 타점, 25 득점으로 결정했다. 추신수는 7월27일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된 뒤 맹타를 휘두르며 꾸준한 출장기회를 잡았다. 9월 들어 부진했지만 최근 홈런을 치는 등 다시 살아나며 내년 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8개팀 확정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2일(이하 한국시간)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8팀이 모두 확정됐다. 전날까지 지구 우승에 매진남 1을 마크 중이던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밀워키에 3-5로 패했으나 지구 2위 휴스턴이 애틀랜타에 1-3으로 지면서 우승을 결정지었다. 이로써 내셔널리그에서는 동부지구 우승팀 뉴욕 메츠, 서부지구 우승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세인트루이스, 와일드카드 팀으로는 서부지구의 LA 다저스가 가을 잔치에 참가한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는 88승74패의 통틀어 시즌을 마쳤지만 팀 간 상대 전적에서 샌디에이고가 13승5패로 앞서 지구 챔피언에 올랐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동부지구 우승팀 뉴욕 양키스를 비롯, 중부지구 미네소타 트윈스, 서부지구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에 매년 끝없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와일드카드 포 포스트시즌행 마지막 티켓을 잡았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는 4일 새벽 2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열리는 오를랜드와 미네소타전으로 시작으로 일제히 막을 연다.